

2020년 26회

법무사 1차 시험 총평

헌법	권순현 박사
	이재영 법무사
상법	이상수 박사
	하영태 박사
민법	이준현 박사
	이혁준 교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
	김지후 교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김기찬 법무사
공탁법	김경태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

2020년 26회 1차 시험 『헌법』 총평

담당교수 : 권순현 박사 (주간반)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20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유사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출제분석)

1. 출제범위

이번 2020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조례에서 1문, 법치주의에서 1문, 정당에서 1문,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론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 1문, 공무담임권 2문, 재판청구권 1문, 신체의 자유 1문, 직업의 자유 1문, 재산권 1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문, 평등권 1문으로 총 9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2문, 정족수 1문, 행정부 1문, 법원 1문, 선거관리위원회 1문, 위헌법률심판 1문, 헌법재판소 1문으로 총 8문제가 출제되었다.

2. 출제의 특징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난이도를 높였던 박스 문제의 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헌법조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부속 법률은 국회법이 반영되었고 다른 부속 법률의 출제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헌법소송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기존의 다른 시험에는 출제가 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담금 판례를 처음 출제하였다.

3.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

헌법조문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헌법조문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부속 법률로는 국회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4. 판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판례 문제입니다. 특히 부담금 판례는 처음 출제가 되었고,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평등권 문제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 문제를 대비하여 기본서 외에 판례서(예를 들면 제 책인 '헌법판례선')와 제공된 최신판례자료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작년대비 난이도

2019년 시험에 비하여 2020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 문제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박스형이 문제가 없고, 평이하게 헌법 조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한 문제 정도 쉬워 보입니다.

(대 책)

대책으로는 헌법과목에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2020. 6. 23. 권 순 현.

2020년 26회 1차 시험 『헌법』 총평

담당교수 : 이재영 법무사 (야간반)

[총 평]

안녕하세요.

올해의 헌법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대비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더 쉬웠다고 보아지며, 헌법 과목은 커트라인의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① 박스형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②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③ 헌법 조문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무려 7문제나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문제 자체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며, 과목 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에 있어서 헌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하에서 목표치인 15개를 맞추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어차피 공부해도 점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올해의 문제 수준은 노력여하에 따라 고득점도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수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과목에서의 점수 편차도 꽤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발표 날 때까지 커트라인에 대한 온갖 예상이 난무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앞으로 합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 6. 23. 이 재 영 올림

[출제 범위]

범위	목 차	내 용	출제분야
총 론	헌법의 의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의 보장		
	헌정사		
	국가 구성요소		
	기본원리	① 법치국가원리 - 명확성의 원칙	판례
	기본제도	① 정당제도 - 정당활동의 자유 ② 지방자치제도 - 행정소송 피고	판례 판례
기 본 권	총론		
	포괄적 기본권	① 평등권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② 평등권 - 절대적 평등X	판례 판례
	자유권	① 신체의 자유 - 현재결정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현재결정 ③ 언론·출판의 자유 - 보호영역 ④ 직업의 자유 - 직장존속보장X	판례 판례 판례 판례
	사회권		
	청구권	① 재판청구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조문
	참정권	① 공무담임권 -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판례
	국민의 의무		
	기본원리		
통 치 구 조	국회	① 국회 정족수 - 자격심사 청구, 예산안 수정동의 ② 부담금 부과 근거 ③ 법사위 소관 사항	조문 판례 조문
	대통령		
	정부	① 국무위원 임명 - 국무총리 제청 ② 감사원장 임명 - 국회동의 ③ 중앙선관위 위원 임기 - 6년	조문 조문 조문
	법원	① 대법원장 - 중임불가	조문
	헌법재판소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 - 대법원 경유 ② 6인 이상 찬성 요하는 경우	조문 조문

2020년 26회 1차 시험 『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상수 박사 (주간반)

(해설자 사견임)

수험생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출제문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총평을 드립니다.

1. 총평

1) 문제 출제의 특성

2020년 기출문제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고, 좀 더 정제하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지문을 읽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약5문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있는 마지막 최신판례중심의 요점강의를 듣지 못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셋째, 보험과 해상편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 7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잘 보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해상편의 문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전체 지문 상 판례가 주를 이루어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총 150개의 지문 중 조문 또는 조문해설지문이 약33개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지문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2) 분야별 출제문제의 분포 및 난이도 평가

상법 총30문제 중 상법총칙 1문제, 상행위 5문제, 회사법 14문제(주식회사 13문제), 보험 5문제, 해상 2문제, 어음수표법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0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순수히 주간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기본강의, 요약강의, 문제풀이, 최종특강까지 충실히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난이도를 따진다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5문제,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13문제, 난이도 '하'에 12문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난해와의 총점수상 차이

일단 지난해보다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문제들이 정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험시간 중의 체감난이도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 보여 지지만, 지문을 조심스럽게 읽고 답을 찾은 분들에게는 점수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기존출제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관적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단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60점을 획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2개정도의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2. 향후 공부방법

역시 매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수험생 여러분은 교재를 정독하여 기본을 갖추고 법전을 통해 조문과 기출판례를 열심히 암기하고, 최종특강 시 제공되는 최신판례를 주의깊이 공부한다면 1차합격을 위한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26회 1차 시험 『상법』 총평

담당교수 : 하영태 박사 (야간반)

I. 인사말

안녕하세요. 상법 전임 하영태 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

II. 상법 기출 총평

1. 난이도 및 출제경향

2020년(26회) 상법문제는 2019년(25회)에 비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제25회 문제의 경우 생소한 판례지문이 등장하여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지만 제26회 문제의 경우 익숙한 판례지문과 관련조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과목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이한 점이라면 최근 3년간의 대법원 판례는 어김없이 출제되고 지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필자가 준비한 최종정리 판례특강에서 언급했던 최근 판례지문이 다수 출제되었고 특강을 수강한 학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유형 및 범위

2020년(26회)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조문문제(3), 판례문제(6), 조문판례혼합문제(21)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 시험들과 달리 대부분의 문제가 조문판례혼합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주제를 혼합한 종합문제는 상행위에서 2문제, 회사법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지난해에 비해 2문제가 증가하였다. 종합문제의 형태는 앞으로도 유사하게 출제되리라 예상된다. 출제의 범위는 상법 전반에 대하여 골고루 출제되고 있지만 제26회에서는 제25회에 비하여 상법총칙 문제의 수가 감소하였고 보험법문제의 수가 증가하였다.

▶**상법총칙**에서는 예년에 비해 3~4문제 감소한 영업양도에서 독립문제로 1문제 출제되었고, 추가지문으로 상행위 종합문제에서 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이 1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상행위**에서는 상행위 종합문제(일방적 상행위/다수당사자 연대책임/소멸시효/유질계약), 상행위 종합문제(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소멸시효), 상사매매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상사시효, 대리상에서 5개의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었다.

▶**회사법**에서는 예년과 같이 회사관련 종합문제(1인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주총회/이사의 의무), 주권(발행/취득/양도/선의취득/명의개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 주주총회(소집·통지·하자·의결권 대리 등),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의 원인, 이사의 선임·해임·보수, 이사의 책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14개의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었다.

▶**보험법**에서는 예년에 비해 2문제가 증가한 보험법 통칙,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보험자대위, 손해보험, 상해보험에서 5개의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었다.

▶**해상법**에서는 예년과 같이 해상운송 등, 정기용선에서 2문제 출제되었다.

▶**어음수표법**에서도 예년과 같이 백지어음, 어음의 배서, 어음의 위조·변조에서 3문제 출제되었다.

Ⅲ. 수험전략

상법문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다. 다만 주요조문과 판례를 단순 암기하여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을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V. 별표: 상법기출 분석표

★총문제(30) 분석: 판례(6문제), 조문(3문제), 혼합(21문제)

출제파트 (문제수)	출제내용	조문/판례
상총(1)	영업양도	조문판례혼합
상행위 (5)	종합문제(일방적 상행위/다수당사자 연대책임/소멸시효/유질계약)	조문판례혼합
	상행위 종합문제(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소멸시효)	판례
	상사매매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조문판례혼합
	상사시효	판례
	대리상	조문
회사 (14)	관련종합문제(1인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주총회/이사의 의무)	조문판례혼합
	주권(발행/취득/양도/선의취득/명의개서)	조문판례혼합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판례
	주주명부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총회(소집·통지·하자·의결권 대리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의 의결권 행사	조문판례혼합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	조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의 원인	조문판례혼합
	이사의 선임·해임·보수	조문판례혼합
	이사의 책임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의 이사회	조문
보험 (5)	보험법 통칙	조문판례혼합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조문판례혼합
	보험자대위	판례
	손해보험	조문판례혼합
	상해보험	조문판례혼합
해상 (2)	해상운송 등	조문판례혼합
	정기용선	조문판례혼합
어음수표 (3)	백지어음(판례)	판례
	어음의 배서	조문판례혼합
	어음의 위조·변조	판례
합계	30문제	

2020년 26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준현 박사 (주간반)

2020년 법무사 제1차 민법 기출문제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2~3개 정도는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의 CIVIL LAW -조문판례를 중심으로- 와 문제풀이 및 최신판례특강에서 다루었던 것이 거의 다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많은 수강생들이 고득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이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 민법 기출문제를 영역별, 형식별로 분석해 봅니다.

영역별	민법총칙 8문항 물권법 12문항 채권법 14문항 친족상속법 6문항
형식별	옳은 것 고르기 2문항 옳지 않은 것 고르기 38문항 박스형식과 사례형식 문항은 없음
판례와 조문의 비중	판례를 묻는 지문이 180개 지문 조문을 묻는 지문이 20개 지문

진인사대천명!!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법무사 시험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법학박사 이준현 올림

2020년 26회 1차 시험 『민법』 총평

담당교수 : 이혁준 교수 (야간반)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과 2021년 시험 출제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 개괄적 평가 >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일체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시간이 20분 더 늘어났다는 점과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 ② 금년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넘어 그 법리까지 좀 더 정치하게 알고 있는지를 출제함으로써 난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과거의 유형에 맞춰서 어설픈게 대비했다면 점수도 마찬가지로 어설픈게 나올 것이고, 좀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대비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문 중에는 민법적 사고만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 ③ 다만 작년과 같이 Box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수험생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는 주제에 대해서는 2문제 이상을 묻는 식으로 출제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 ④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 **40문제 중 5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막았다면 합격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 개별적 평가 및 예상 >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조문 문제는 총 200개 지문 중 10개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② 특히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취소권과 가족법의 법리가, 점유권과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권리)질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및 물상보증이, 물권적 청구권과 공유의 법리가 각각 한 문제에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었습니다. 간명히 말한다면 민법의 단편적인 사고보다는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③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종합적·전체적인 민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감지하여 2021년 시험을 지혜롭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영역별 평가

영역별로 보면,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10문제	15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사례형
8문제	14문제	12문제	6문제	X

작년보다 민법총칙의 비중이 낮아졌고, 아래에서 보겠지만 채권각론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Box형이나 사례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형식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겠고, 오히려 내년(2021년)에는 작년(2019년)의 형식과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0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상당히 길었으나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었어야 했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쉽고 씁쓸한 말이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객관식 지문은 어차피 판결요지를 지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를 공부할 때 키워드나 핵심 문장 등을 익숙하게 만들었어야 했고, 일정한 패턴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정리했었다면 시간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도 수험생은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요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정리하여, 포인트별 패턴으로 지문을 빠르게 읽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한 수험방식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p>민 총 (8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칙과 파생원칙 ▶ 법인 ▶ 중중 ▶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제103조와 제104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무효와 취소 ▶ 소멸시효(2문제) <p>※ 금년에 대리파트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채권총론 (10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손해배상책임(3문제) ▶ 채권자취소권(2문제) ▶ 채권양도 ▶ 변제 ▶ 상계 ▶ 다수당사자 법률관계(2문제) <p>※ 금년에 채권자대위권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채권각론 (4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및 해지 ▶ 계약금 ▶ 사무관리 ▶ 불법행위 <p>※ 금년에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물권법 (12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권변동 ▶ 등기의 추정력 ▶ 점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구분건물 ▶ 취득시효 ▶ 공유 ▶ 지상권 ▶ 전세권(2문제) ▶ 유치권 ▶ 권리질권·일괄경매청구·물상보증 <p>※ 금년에 명의신탁과 저당권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가족법 (6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2문제) ▶ 입양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권 ▶ 유류분 및 기여분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집중해서 2문제 이상도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출제되었던 주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의 'Box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내년에는 출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컷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

2020년 26회 1차 시험 『가족관계등록법』 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주&야)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 모두에게 힘찬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험지 면수

	출원인원 (전년대비)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현·상·민· 가)	2교시 (집·비·부·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3,625명 (+112명)	61점	22 p.	19.5 p.	2 p.
2018년	3,704명 (+79명)	58.5점	19.5 p.	20.5 p.	2 p.
2019년	4,135명 (+431명)	60점	20.5 p.	21.5 p.	1.5 p.
2020년	4,413명 (+278명)		22.5 p.	22 p.	1.25 p.

◎ 2020년 출제 분석

- 총 10문제 중 총칙에서 3문제, 신고각론에서 5문제(종합문제 2문제 포함), 등록부정정 1문제, 가족관계등록비송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 1책형 41번(2책형 41번)과 50번(2책형 47번) 2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1책형 42번(2책형 42번)과 1책형 48번(2책형 45번) 2문제 정도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6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할 ‘기본문제’에 해당합니다.
 - 1책형 41번(2책형 41번) 문제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37호)’은 『기본서』에는 예규 전부를 수록하였으나, 『객관식』과 『조문·예규·선례의 맥(脈)』에는 전부를 수록하지 않았으며 강의에서도 강조하지 않은 예규이어서 수험생들 대부분이 정답을 고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1책형 50번(2책형 47번)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는 문제 역시 법조문의 준용규정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책형 42번(2책형 42번)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문제는 옳은 것 찾는 문제인데 정답이 생소한 가사소송법 규정이라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 1책형 48번(2책형 45번) 유연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찾는 문제 역시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출제 총평

1. 출제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 졌으며, 1책형 41번(2책형 41번), 1책형 50번(2책형 47번)을 제외하고 평이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어, 성실히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부를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 간에 득점 차이가 날 것입니다.
2. 예년 대비 지문의 길이가 짧았으며(1.5p. ~ 2 p. ⇒ 1.25 p.로 줄어 듦), ‘옳은 것’ 찾는 것도 2문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3. 전체적으로 법조문과 주요예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총 10문제 중 6문제 득점하였으면 무난(無難)하고, 7~8문제 득점하였으면 고득점한 것입니다. 강의도 충실히 듣고 공부도 성실하게 한 수험생이 고득점 하였을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4. 이번 2020 1차시험부터 종전보다 20분 더 시험시간이 주어진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배점 작은 과목들의 성적이 수험생들의 당락(當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0년 합격선(cut-line) 관련 예측 : 변동 없음

2017년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뤄진 이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해였으며, 2018년은 다소 까다롭기는 하나 이전(~2016년 이전)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회복하였고, 2019년은 2018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예상 cut-line(합격선)과 관련하여 이번 2020년은 작년 대비 변화 없는 ‘0’으로 봅니다.

◎ 맺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한테도 위로받기 힘든 수험생활을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完走)하여 응시(應試)한 수험생 모두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를 보냅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뒷면)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목 차		2016	2017	2018	2019	2020	
제1편 총 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1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1		1	2		
	제6장 각종 부칙과 서류						
	제7장 등록부등의 공개		2		1	1	
제2편 등록사무 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			2	1	
		제3절 직권 정정·기록	1				1
		제4절 접수 심사 등	1			1	1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제6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쇄					
	제2장 출생신고	1		1		1	
	제3장 인지신고	1					
	제4장 입양신고					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1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1		1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1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분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 총론	1	2		1		
	제2장 국제등록사무 각론	2		1	1		
제4편 등록부의 정정		1		1	1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록부창설 등)	1		2		1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제7편 벌칙, 과태료		2					
총 합 문 제		1			2	2	

2020년 26회 1차 시험 『민사집행법』 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야간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cut-line)과 합격자 발표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시험은 끝났으나 결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시험은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책을 보며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當付)를 드립니다.

◎ 시험지 면수

	출원인원 (前年 대비)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현·상·민·가)	2교시 (집·비·부·공)	민사집행법
2017년	3,625명 (+112명)	61점	22 p.	19.5 p.	8 p.
2018년	3,704명 (+79명)	58.5점	19.5 p.	20.5 p.	8 p.
2019년	4,135명 (+431명)	60점	20.5 p.	21.5 p.	9 p.
2020년	4,413명 (+278명)		22.5 p.	22 p.	8.5 p.

◎ 2020년 출제 분석

- 총론 6문제, 재산명시절차등 0, 부동산경매 20, 유체동산 0, 채권집행 3, 보전처분 6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예년 대비 부동산경매에서 3문제 정도 더 많이, 채권집행에서 2문제 정도 더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3년간 출제 빈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론	2	8	6
재산명시절차등	1	0	0
부동산경매	22	14	20
유체동산	1	1	0
채권집행	4	5	3
보전처분	5	7	6
기타(강제관리, 선박등, 비금전집행)	0	0	0
합	35문제	35문제	35문제

2.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이 2018년 50여개, 2019년 50여개 출제되었는데, 금번 2020년 시험에서도 50여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20개 정도를 생소한 지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2020년 법원승진시험(사무관 20문) 일부 지문이 이번 법무사 제1차시험에도 출제되었으나 정답지문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그 비중도 줄었습니다.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도 미미하였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예규 포함) 대략 7 : 2 : 1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 2020년 출제 총평

1. 시험시간은 20분 더 늘어나고 전년 대비 시험지 면수는 0.5 p. 줄었으나, 여전히 미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옳은 것을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예년 대비 더 많이 출제 등을 종합하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작년 2019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역대급 난이도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0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가 작년 대비 5문제 정도 더 출제되어 22문제(대략 62점) 이상 ‘기본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문제의 지문 대부분이 생소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아예 정답을 찾기 곤란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작년 대비 2문제 정도 더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예년 대비 더 출제되었습니다(5문제). 1책형(2책형) 7번(5번), 9번(11번), 11번(7번), 17번(19번), 18번(20번), 19번(17번), 22번(24번), 34번(31번) 정도를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2020년 시험은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정답 배려도 많이 되었으므로 성실히 공부를 하였고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25문제(대략 71점) 이상 득점할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미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객관식 문제집』 기출지문 반복 위주의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문제를 어렵게 풀었을 것이며, 『조문·판례의 맥』으로 단권화를 한 수험생들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4. 실전 시험장에선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4과목을 한꺼번에 풀어야 하고, 『민사집행법』은 태생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면서 배점도 커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고충은 언제나 큼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적절한 변별력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실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까다로운 문제들을 꽤 많이 출제한 점은 출제위원들이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시험이 ‘찍기 운’을 시험한다면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총 35문제 중 25~26문제(71점~74점) 득점하였으면(9~10개 틀렸으면) 무난하고, 28문제(80점) 이상 득점하였으면(7개 이하 틀렸으면) 고득점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닦은 수험생이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하였길 바랄 뿐입니다. 시험 끝난 뒤 복기를 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내가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 2020년 합격선(cut-line) 민사집행법 예측 (+1.5 문제)

이번 시험의 경우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정답 배려도 꽤 있어 전년 대비 이번 2020년은 1.5문제 정도 상승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대비(對備) 2018년 1문제 하락 예상, 2018년 대비(對備) 2019년 2문제 하락 예상하였음)

◎ 맺으며

코로나 역경 속에서 자신과 싸우며 힘들게 수험준비를 하고 응시(應試)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고(勞苦)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뒷면 참조)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제1편 총 칙	집행기관						
	즉시항고		1				
	집행이의	1		1	1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	1	1			1	
	집행비용	1	1		1	1	
	집행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강제집행) 총 칙	집행당사자		1				
	집행권원	2	1		1		
	집행문	1			1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적극적 요건, 집행장애)	1	1	1		1	
	집행문구제절차				1		
	청구이의의 소	1	1		1	1	
	제3자이의의 소	1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2	1	
재산명시 절차 등	재산명시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압류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		1		1	
		강제경매의 요건, 강제경매의 신청		1			1
		강제경매개시결정(심리, 목적물 조사)			1		
		기입등기촉탁, 강제경매개시결정 송달					
		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1	2		1
		부동산 이중경매		1	1		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1	1			1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현금 화	매각절차에서 당사자 승계		1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		1
		배당요구종기결정·공고·고지, 채권신고 최고	1			1	1
		현황조사, 평가, 최저매각가격 결정				1	
		매각물건명세서	1	1	1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		1
		개별매각, 일괄매각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1			
		매각 실시 절차					1
		공유자의 우선매수		1			
새 매각							
매각결정절차		1	2	1	1		

배당	매각대금의 지급			1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1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	1	1	1	1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	1		1	
	임금채권	1			2		
	조세·공과금채권	1	1				1
	가압류채권	1		1			
	배당표의 작성(배당순위, 구체적인 배당방법)					1	
	배당기일의 실시(배당이의)			1	1	1	
	배당이의 소송		1	1		1	
	배당의 실시					1	
	경매신청의 취하	1				1	
	부동산경매 종합문제	2	1	3		1	
	부동산 강제관리		1				
선박 등							
유체동산				1	1		
채권집행	집행의 대상(피압류적격)	2		1			
	압류명령		1			1	
	추심명령	1	1	1	1		
	전부명령			1	2		
	특별한 현금화방법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집행의 경합	1	1			1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배당절차		1		1		
	채권집행 종합문제	1	3	1	1	1	
비금전집행(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형식적경매)		1	1		1	3	
제4편 보전처분	보전소송의 관할			1		1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보전소송의 소송물	1	2		1	1	
	보전처분 신청, 심리와 재판		1		1	2	
	보전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2			2		
	본집행으로의 이전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1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1			
	보전처분 종합문제			2	3		

2020년 26회 1차 시험 『상업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김경중 법무사 (주&야)

■ 제26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0문제, 비송사건절차 4문제,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교차지문 1문제로 작년에 이어 비송사건 절차법 분야의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2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문의 길이가 예년에 비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로 인한 난이도 상승요소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한 지문 내에서 앞에는 맞는 내용 뒤에는 틀린 내용이 섞여 나오면서 정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시간을 많이 들여 판단하거나 답을 찾지 못하여 답을 자신 있게 선택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평년 수준 보다는 어려웠을 것이고, 작년 25회(2019년) 수준과 비교하여서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 수준만으로 보면, 상급 4문제, 중상급 2문제, 중급 3문제, 하급 6문제로 전체적으로 중간 난이도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과 긴 지문이 있는 문제들로 인해 체감난이도는 높은 편이지만 채점해 보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득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생 간 변별력은 크지 않은 과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0.5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①책형 문제 기준으로 문제40번.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문제 및 [①~③, ⑤의 전문]의 지문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④, ⑤의 후문]의 지문은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가처분 직무대행자'가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구한 재판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이다('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일시 이사 선임 재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일시이사가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다.). 문제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④,⑤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학습방향

25~26회, 2년에 걸쳐 비송사건절차법의 출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비송사건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고 권하지는 못할 듯하다. 상업등기법에 11~12문제의 비중을 놓고 비송사건(법인등기/과태료 사건 포함)에 3~4문제의 비중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공부의 비중으로 보면 주식회사 60%, 상업등기 총론 20%, 비송사건재판 총론 10%, 나머지 10% 정도의 순으로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나, 시험의 비중은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에 대한 이해도와 상업등기 실력이 연동되는 면이 있으므로 특히 상법의 주식회사의 내용을 공부할 때 해당 제도의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상업등기의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면과 1:1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놓아야 한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상업등기	총론		3.5	2	4	3	3.5	16	
	상호		1			1		2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0	
	합명회사							0	
	합자회사							0	
	주식회사		6	7	7	3	5	28	
	유한회사					1		1	
	외국회사				1		1	2	
	유한책임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2				2	
비송사건	총칙		0.7	2		2	1	5.7	
	민사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0.7		1			1.7
		신탁에 관한 사건							0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2	1				1.2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0.2					0.2
	민사비송 종합문제				1			1	
	상사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1	3	6
		사채에 관한 사건					1		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0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1.7					1.7	
총계			15	15	15	15	15	75	

2020년 26회 1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유석주 법무사 (주간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주법무사입니다.

◎ 2020년 출제경향

<1책형 기준으로 해설>

2번 문제 '신탁등기에 대한 문제'는 최근 등기선례를 포함하여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만 정답은 오히려 쉽게 고를 수 있었다(난이도 ★).

3번 문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문제' 역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었지만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통하여 강조했던 문제이었다(난이도 ★★).

4번 문제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등기에 대한 문제'는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최근 등기선례가 출제되었으므로 평균적인 수험생에게는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난이도 ★★★).

5번 문제 '대지권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되는 ①지문은 기본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이지만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 명백하므로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난이도 ★).

17번 문제 '방문신청 및 보정에 대한 문제'는 최근 선례가 정답으로 출제되었지만 다른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므로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난이도 ★).

18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문제'는 지문이 모두 교재에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주 접하지 않은 선례가 출제되었으므로 난이도 ★★로 처리한다.

19번 문제 '관공서의 촉탁등기' 문제 역시 교재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지만 최근 선례가 출제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 ★★로 처리한다.

21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문제는 나머지 지문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지문이나 ①지문을 답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난이도 ★)

◎ 2020년 총평

2019년도 시험과 비교한다면 최근 선례가 많이 출제되어 체감 상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8문제 정도 (위에서 ★로 처리한 문제)로 계산되나 그 중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격생의 평균 득점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등기법 + 공탁법 과목의 합격자 평균 67.473이므로 2020년도에는 두 과목 합격자 평균은 70.00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등기법에 국한해서는 30문제 중에 20문제 이상 득점한 수험생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2020년도 부동산등기법 30개의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문제별로 교재싱크로울을 계산해 보았는데 94%에 해당하는 지문이 실제로 기본서나 문제집에 수록된 지문이므로 기본서를 탐독하고 문제집을 2회독 이상 읽어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021년 대비 학습방법

2021년도 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자의 저서 부동산등기법 기본교재만 마스터하고 2021년도에 출간되는 객관식등기법 및 마무리 강의로 최신 등기선례를 보충하면 내년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참고: 교재싱크로울

문제	교재싱크로울	난이도	문제	교재싱크로울	난이도
1	100%		16	80%	
2	100%	★	17	80%	★
3	100%	★★	18	100%	★★
4	0%	★★★	19	100%	★★
5	80%	★	20	100%	
6	100%		21	80%	★
7	100%		22	100%	
8	100%		23	100%	
9	100%		24	100%	
10	100%		25	100%	
11	100%		26	100%	
12	100%		27	100%	
13	100%		28	100%	
14	100%		29	100%	
15	100%		30	100%	
평균	94%				

2020년 26회 1차 시험 『부동산등기법』 총평

담당교수 : 김기찬 법무사 (야간반)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까지 한 길을 달려오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라며 총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II. 총평(제26회 시험의 특징)

1. 시험시간의 연장

- (1) 올해부터 법무사시험은 시험시간이 20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시험과의 체감난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출제자도 이를 반영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2) 특히, 올해 부동산등기법 문제 1책형을 푸신 분들은 적잖히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면에 신탁등기와 말소회복등기 및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출제해 수험생들에게 압박감을 주어 시험난이도를 높이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 (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시험은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므로 숙지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고 다른 문제의 기출지문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셨다면 등기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신 예규·선례의 빈출

- (1) 올해시험은 최신 예규 및 선례가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 ① 신탁등기, ② 특별법상의 금지사항부기등기, ③ 등기신청절차 및 보정에 관한 내용, ④ 전세권등기,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한 등기, ⑥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물표시변경등기에 대한 과태료삭제 규정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출되었거나 개정된 부분이 빈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 앞으로도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출의 반복성

(1) 법무사 기출문제의 중요성

- ①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금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150개의 지문 중 80지문 가량이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즉 50% 이상이 기출문제로 이루어져있었으며, 3개 이상의 기출지문이 포함된 문제는 18문제, 2개 이상의 기출지문이 포함된 문제는 23문제로 각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출지문이 골고루 퍼져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 ② 또한, 20문제가 이미 반복되었던 기출지문이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만큼 기출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정리하여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 ③ 이번과 같이 최신 예규·선례 또는 지엽적이고 생소한 지문들이 출제되었을 때 평소에 보던 기출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기출지문부터 숙지하여 정리를 하시면 시험장에서의 압박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꼭 정리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2) 법원직 문제의 호환성

- ①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채시험과 사무관승진시험이 유사하게 출제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② 올해 시험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20년 9급 공채시험(2월)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4월)에서 빈출된 지문이 그대로 우리 법무사시험에 지문으로는 12지문, 문제로는 7문제 속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 ③ 더 나아가, 16번 문제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정답지문이 일치하였고, 19번 문제는 9급 공채시험과 정답지문이 일치하였습니다. 즉, 위 두 법원관련 시험만 풀어보았다면 2문제는 쉽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4. 조문·예규·선례의 비중

- ① 올해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문은 31지문, 예규는 69지문, 선례는 50지문으로 집계되었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②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조문이 약 20%이며 예규·선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등기법은 예규 및 선례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므로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5. 총평 및 수험방향

- ① 금년 부동산등기법은 지엽적이고 생소한 지문들이 대거 출제되어 작년보다 난이도가 쉽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을 정리하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업시간과 최종 마무리 정리수업에 강조한 [시효취득, 진정명의 회복, 수용] 3가지의 유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 등은 아무것도 필요없다(검인x/농지취득자격증명x/토지거래허가증x)라고 강조하였었는데, 그 부분만 기억하셨더라도 6번 문제, 23번 문제, 26번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 ② 즉, 앞으로의 공부방향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원칙과 예외로 잘 구별하며 비교되는 것끼리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와 최신 예규·선례를 꾸준히 보는 것이 좋은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이번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21문제 이상을 득점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수험생 모두 고득점 하시길 기원합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며 더 높은 능선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심기일전하시어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찬 법무사 올림 -

2020년 26회 1차 시험 『공탁법』 총평

담당교수 : 이천교 법무사 (야간반)

금년 공탁법의 경우 우선 시험분량 면에서 볼 때 지난해 보다 시험지문 길이가 오히려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박스형 문제도 지난해는 5문제였으나 금년에는 3문제였으며, 총 시험지 페이지 분량도 작년에는 딱 차게 4.5 페이지였으나 금년에는 4페이지가 채 안되었습니다.

결국 공탁법의 시험문제 분량은 작년에 비해 최소한 2-3문제 정도의 분량이 적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함께 시험을 보는 부동산 등기법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약간의 점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공탁법의 경우는 여전히 기출지문 출제 비중이 상당하였고,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작년이나 금년 모두 비슷하게 5개 가량 출제되었습니다.

분야별 출제비중을 비교해 볼 때, 공탁 일반 내지 총칙분야의 출제가 작년 6문제에서 금년 10문제로 대폭 증가한 반면 그 만큼 변제공탁 부분의 출제문제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었고, 다른 부분은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탁(보관공탁, 몰취공탁, 몰수보전, 선박소유자책임제한 등)분야의 출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의 부분은 점수변동 요인의 면에서 작년대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작년보다 금년의 경우 조금 구석진 부분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 생소한 지문이 약간 있었으며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약간의 점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개 안되는 편이었으며, 그 중 일부 문제는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탁법의 경우 기본서 내용 자체가 적은 편이며 금년에도 대부분 공탁법 기본서에서 아주 벗어나지는 않는 문제들이었기에 점수하락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년 공탁법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